

Daily News

11월 2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1월 2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주택지표 호재로 반등... 다우 1.2% ↑	뉴욕증시가 23일(현지시간) 주택판매 지표 개선에 힘입어 나흘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음. 미 연준의 저금리 지속 기대감과 이에 따른 달러화 약세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음. 다우 지수는 132.79포인트(1.29%) 상승한 1만450.95를, 나스닥 지수는 29.97포인트(1.4%) 오른 2176.01을, S&P 500 지수는 14.86포인트(1.36%) 상승한 1106.24를 각각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오름세로 출발했음. 미국 달러화가 사흘만에 약세로 돌아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품주의 모멘텀이 강화됐기 때문임.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은 점도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줌. 특히 개장직후 발표된 10월 기존주택판매 실적이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높은 전월비 10.1%의 급증세를 기록한 점이 큰 호재로 작용했음.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의 블루칩 종목중 주가가 오른 종목이 27개에 달할 정도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종목이 크게 우세했음.
금값, 국제유가 동반 상승..금광주 강세	미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란이 핵시설 방어를 위해 군사훈련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중동지역 긴장감을 고조시켜, 금값과 국제유가를 동반 상승시켰음.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12월 인도 금값은 온스당 17.90달러(1.6%) 상승한 1164.70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금값은 장중 한 때 1174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음. 국제유가도 장중 2%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80달러선에 근접하기도 했음. 다만, 80달러선에 근접하자 차익매물이 급증, 결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2월물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9센트(0.12%) 소폭 상승한 77.56달러에 마감됐음.
연준 총재들 저금리 지속 발언에 달러화 반등	이날 미 달러화는 사흘만에 약세로 돌아섰음. 미 연방은행 총재들이 저금리와 같은 `팽창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잇따라 시사하자, 최근 이틀간 반등한 미 달러화에 차익매물이 출회됐음.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스(FT)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경제가 고르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이 압력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한 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2010년말 혹은 2011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미 연준이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매입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긴축정책이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약달러로 소폭 상승	국제유가가 23일(현지시간) 미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음. 이란의 군사훈련에 따른 중동지역 긴장감도 영향을 미쳤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2월물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9센트(0.12%) 소폭 상승한 77.56달러에 마감됐음. 미 달러화가 사흘만에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란의 핵시설 방어 군사훈련으로 중동에 긴장이 강화된 점이 유가 상승의 재료로 작용했음. 특히 국제유가는 장중 배럴당 80달러선에 근접하기도 했음. 그러나 배럴당 80달러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인식됨에 따라 장중 매물이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크게 줄였음.
내년 4대은행 종합검사..국민은행 1월 착수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내년초 종합검사에 착수함.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종합검사를 실시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 무려 4곳의 대형은행에 검사를 나가야 하는 등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임. 2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이게 될 전망이다. 사전검사는 이보다 앞선 올 12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임. 당초 내년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예정되긴 했으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연초 검사역(RM)에 대한 교육일정 등을 감안해 2월 이후에나 종합검사가 이뤄져왔음.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난해 종합검사를 하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물론이고 우리은행 신한은행까지 대형은행 4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해야 할 판임. 금감원은 `한국판 터너리포트`라고 불리우는 `위기이후의 금융감독과제 보고서`에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 대형은행들의 경우 1년에 한번 종합검사를 벌이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음.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대형은행 4곳에 대해 종합검사를 해야 해 국민은행의 검사 일정을 앞당겨 1월 정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음. 김종창 금감원장도 전일 주재임원회의에서 내년 검사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내년 1월에라도 검사를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런 점을 고려해 당초 올 12월에 시작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최근 KB금융회장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금감원 안팎의 시각에 따라 1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금감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은행들에 대한 종합검사를 미뤄오다 지난 5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검사를 재개했음. 이후 6월 우리은행, 8월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였음. 아울러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해 왔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